

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 10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박영정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합동위는 군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소통 협의체'도 운영토록 권고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일상에서 겪는 성별, 세대별 인식 격차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합동위는 활동 4개월 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73개 안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활동 과정에서 민간 위원들이 잇따라 국방부와의 이견으로 중도 사퇴하는 등 잡음도 적지 않았다.

BTS·미나리·오징어게임... 'K-컬처' 전 세계를 뜨겁게 하다

■ 개요

2021년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지닌 위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해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키며 글로벌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고, 팝 음악의 본토인 미국 시장에서도 새 역사를 써 내려갔다. K팝뿐만 아니라 'K 무비', 'K 드라마'도 전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은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를 발판 삼은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 열풍

을 일으켰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K-컬처'는 더는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됐다.

■ 모두가 인정하는 '문화 아이콘'...방탄소년단, 연이은 기록 행진

방탄소년단은 2021년에도 K팝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다.

명실상부 글로벌 팝스타 반열에 오른 이들은 2021년 5월 영어 싱글 '버터'(Butter)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 곡은 발표 직후 크게 히트하며 미국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통산 10주간 정상에 올랐다. 핫 100 차트에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버터'를 비롯해 역대 40곡 뿐이다.

빌보드와 MRC 데이터가 발표한 '미국 음악시장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버터'는 2021년 한 해 동안 약 188만9천 건 다운로드 돼 '디지털 송 세일즈'(Digital Song Sales) 부문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전 세계 팬들의 열기는 후속곡으로도 이어졌다. 7월에 공개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당시 7주 연속 '핫 100' 차트 1위를 기록했던 '버터'를 밀어내고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기존 1위 곡에 이어 후속곡이 정상에 차지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팝스타만이 해낼 수 있는 대기록으로 평가받는다. 그야말로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을 이긴 셈이다.

방탄소년단은 9월에는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또 한 번 '핫 100' 정상에 오르면서 팝 음악계의 '홍행 보증 수표'임을 확실히 했다.

두 그룹이 합작한 곡이 '핫 100' 정상에 올라선 건 빌보드 역사상 처음으로, 콜드플레이는 2008년 발표한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이후 무려 13년 만에 빌보드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역할도 독특히 해냈다.

이들은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자 세계 청년 대표 자격으로 초청돼 목소리를 냈다.

멤버들은 "지금 청년들은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일상을 채워나가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다.

방탄소년단의 활약은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더욱 빛났다. 이들은 11월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비롯해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과 '페이보릿 팝송'까지 3관왕에 올랐다.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시상식으로 꼽히는 AMA에서 아시아 아티스트가 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2022년 4월 열리는 제9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2년 연속으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 콜드플레이, 도자 캣·SZA, 토니 베넷·레이디 가가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겨룬다.

그래미 어워즈는 차트 성적이나 대중적 인기를 잣대로 삼는 여타 음악 시상식과 달리 음악적 본질에 충실한 만큼 2년 연속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탄소년단은 11~12월 팝 음악 시장을 다시금 열광케 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열고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들과 만났다. 총 4일간 열린 공연에는 2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으며 온라인 공연에도 58만 천여 명이 참여했다.

■ 세계 여러 영화상 휩쓴 '미나리'…아카데미도 '윤여정' 들다

영화계에서는 '미나리'의 활약이 돋보였다.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1980년대 미국 남부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스티븐 연과 한국 배우 윤여정, 한여리가 출연했는데, 윤여정은 딸 모니카(한여리 분)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할머니 '순자'를 연기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영화 '미나리'는 2021년 초부터 영화계의 각종 상을 휩쓸어 전 세계 영화인의 관심을 받았다.

이 작품은 미국 여성영화기자협회 여우조연상(윤여정), 카프리 할리우드 국제영화제 각본상·음악상, 서부 뉴욕 평론가를 중심으로 한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과 외국어영화상 등을 받았다.

차곡차곡 트로피를 쌓던 '미나리'는 3월 골든글로브에서도 최우수외국어영화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당시 외신들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빛낸 사실상의 '우승작' 가운데 하나로 미나리를 꼽기도 했다.

이 작품은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상'에서도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여우조연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영화의 성공으로 가장 주목받은 건 70대 여배우 윤여정이었다. '미나리'는 2020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전 세계 여러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110여 개가 넘는 상을 받았는데 윤여정은 이 가운데 40여 개를 받아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그의 매력은 4월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품에 안으며 더욱 빛났다.

윤여정은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의 마리아 바칼로바, '힐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스, '맹크'의 어맨다 사이프리드,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맨 등 쟁쟁한 후보들을 꺾고 아카데미에 이름 석 자를 새겼다.

이로써 그는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이자, '사요나라'(1967)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4년 만에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역대 두 번째 아시아 여성 배우가 됐다.

윤여정은 특유의 솔직하고 재치 있는 화법으로도 화제에 올랐다. 그는 '미나리'의 제작자이기도 한 브래드 피트가 수상자를 호명한 뒤 무대에 올라 "드디어 만났다. 너무 반갑다. 그런데 우리 영화 찍을 때 어디 계셨나?"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유창한 영어로 할 말은 하지만 품위를 지키는 윤여정 표 화법에 젊은 세대들은 '윤여정들다'(윤여정에 '스며들다'를 합친 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환호하기도 했다.

윤여정은 10월 문화예술 공로자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금관 문화훈장의 영예도 안았다. 12회째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에서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21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지난 50여 년간 구축해 온 개성 있고 독보적인 연기 인생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초록색 체육복도 히트…전 세계 열광시킨 K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2021년 돌풍적인 인기를 끌며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한국 제작진이 만들고 한국 배우가 출연한 이 드라마는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오징어 게임'은 9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직후 화제가 됐다. 이 작품은 배우들의 열연과 게임 하나하나의 완결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닷새 만에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인기 작품 1위에 올라 관심을 끌었다.

9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46일 연속 전 세계 순위 1위를 유지하며 넷플릭스 사상 최장 1위 기록을 세웠고, 불과 26일 만에 전 세계 1억천100만 가구가 이 작품을 시청했다.

윤여정 제93회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25일(미국시간) 제93회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여우조연상 후보 5인

- 윤여정 (미나리)
- 마리아 바칼로바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
- 글렌 클로스 (힐빌리의 노래)
- 올리비아 콜맨 (더 파더)
- 어맨다 사이프리드 (맹크)

연습뉴스

이는 작품 공개 28일 만에 시청 가구 8천200만을 달성한 영국 로맨스 드라마 '브리저튼'의 기록을 제친 것으로, '오징어 게임'은 사상 최단기간에 최대 시청자라는 금자탑을 쌓게 됐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문화 하나하나에도 열광했다. 강렬한 목소리와 리코더 소리로 시작하는 오프닝 음악은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초록색 체육복과 분홍색 유니폼 등 '오징어 게임' 속 의상은 불티나게 팔리며 할러윈 행사 최고의 인기 복장으로 떠올랐다.

작품 속에 등장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줄다리기' 등의 게임은 한국 문화가 생소한 외국인들에게도 'ميم'(meme·인터넷에서 놀이처럼 유행하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이어졌다.

K 드라마를 알리는 기폭제가 된 '오징어 게임'은 대중문화 시상식에서도 존재감을 빛냈다.

이 작품은 11월 미국 독립 영화 시상식 중 하나인 고섬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12월 대중문화 시상식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올해의 몰아볼 만한 쇼' 수상작으로 뽑혔다.

또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 양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에도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TV 드라마 작품상과 남

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오영수) 3개 부문 후보로 지명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오징어 게임'이 활발 날면서 K 드라마를 바라보는 세계 시장의 관심도 커졌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은 11월 공개 이후 넷플릭스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10일간 정상을 지키며 '믿고 보는' K 드라마의 저력을 많은 이에게 보여줬다.

이 밖에도 '고요의 바다', '사랑의 불시착', '갯마을 차차차' 등이 해외 팬들을 매료시키며 인기를 끌었다.

이런 흐름 속에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앞다퉀 K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투자자이자 최대 수혜자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 애플TV+ 등은 다양한 작품에 투자하며 '제2의 오징어 게임'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주연 배우뿐 아니라 작가와 감독, 콘텐츠 제작사 등도 해외 진출에 도전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즉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쿠데타 동지' 노태우·전두환 세상 떠나

■ 개요

'12·12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과 11월 약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불과 28일 만에 전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전 씨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 등을 비롯한 역사적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해 비난을 샀다.

노 전 대통령은 5일간의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지만, 전 전 대통령은 반대 여론에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은 별세 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유족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재헌 씨가 부친 별세 이후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직접 전했다.

오징어 게임 골든글로브 3개 부문 후보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 2022년 1월 9일 (현지 시간)

텔레비전 시리즈-드라마 **작품상** 후보

- ◆ 오징어게임 - 넷플릭스
- ◆ 더 모닝쇼 - 애플TV+
- ◆ 포즈 - FX
- ◆ 뤼팽 - 넷플릭스
- ◆ 석세스 - HBO/HBO MAX

<p>텔레비전 시리즈-드라마 남우주연상 후보</p> <p>이정재 (오징어 게임 기준 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이언 콕스 (석세스) ◆ 빌리 포터 (포즈) ◆ 제레미 스트롱 (석세스) ◆ 오마 사이가 (뤼팽) 	<p>텔레비전 시리즈-드라마 남우조연상 후보</p> <p>오영수 (오징어 게임 일남 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리 크루덤 (더 모닝쇼) ◆ 키에란 컬킨 (석세스) ◆ 마크 듀플라스 (더 모닝쇼) ◆ 브렛 골드스타인 (데드 라스)
---	---

자료/ goldenglobes.com 